



5면

전북대 환경복원공학 연구실  
과기부 '건강한 연구실' 선정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음 5월 25일) 제257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 '전북형 뉴딜'로 지역경제 체질강화

정부 '한국판 뉴딜' 접목  
디지털·그린 뉴딜 등  
분야별 대응전략 마련  
단기·중장기 '투트랙'  
사업발굴·예산활동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서 구성, 2025년까지 국비 총 114.1조원 수준의 재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은 '디지털 뉴딜' 부분에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그린 뉴딜' 분야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전략부문을 28개 과제를 제시하고, 디지털·그린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효과가 크고 균형발전, 국민 체감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대표과제를 우선해 강한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각 분야별 뉴딜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 전북형 뉴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취약한 전북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주력산업 디지털화, 공공 디지털 기반 구축, 노후 SOC의 디지털 전환 등의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그린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생태 농생명 등 전북의 강점을 활용, 그린에너지 가속화와 생태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단기, 중장기 측면에서 투트랙 (Two Track) 전략을 수립,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



'연일 내린 비로 부유물 가득 쌓인 전주천' 장맛비와 더불어 연일 비가 내린 14일 전주천에 떠내려온 부유물이 천변 일대에 가득하다.

하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 5월26일 행정부지사들을 단장으로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구성해 도내 기업과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를 참여시켜 100여건의 사업을 발굴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인프라(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등) 구축 52건, 비대면 산업 육성 13건, SOC 디지털화 14건, 탄소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 16건, 그린 리모델링 5건 등이다.

단기적으로 기존사업 및 발굴사업의 재구성, 구체화 등을 통해 뉴딜정책에 해당하는 신속한 사업발굴과 2021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2020년 정부 3차 추경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친환경 전기 굴착기 보조지원사업, 전 도민 비대면 서비스 포용교육 등 11건 (243억원)을 반영했다.

또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태양광),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수소), 전기자동차 에너지 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전기차), 해

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풍력), 홀로그램 소재, 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홀로그램)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준비 및 2021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연계된 종합적인 전북형 뉴딜 전략을 마련하고 시군 간 균형도 고려해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의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전국 차원의 분야별 전문가와 정책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전북형 뉴딜 종합정책 수립단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7~9월간 집중적인 사업 발굴을 경주해 2021년 국가예산 반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그 후 발굴된 사업에 대해 필요성 등 반영 논리를 구체화시켜 2022년 이후 국가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전북형 뉴딜 전략마련 및 지

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발굴, 최우선적으로 2021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중장기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송하진 도지사 '전국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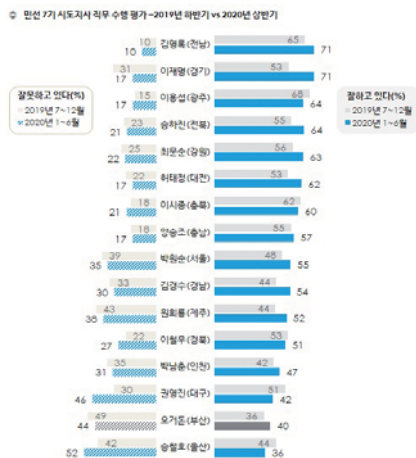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결과 전국 3위를 차지했다.

14일 한국갤럽이 2020년 상반기 6개월간 광역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집중한 결과에 따르면 50%가 긍정 평가를 28%는 부정 평가를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지역 시도지사 직무수행률이 작년 하반기 대비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무수행률 71%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용섭 광



주시장과 올해 상반기 직무수행률 64%인 공동 3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송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 전북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각인시켰으며 위기속에서 큰 부침없이 안정적으로 도정을 운영했다. 또한 도정운영을 선제적으로 대응, 지역내 산적된 현안사업들을 무리없이 이끈 부분이 반영됐다.

/유호성 기자

## 수능 선제대응 시나리오는?

전북교육청, 위기상황·시기별 방역대책·운영계획 마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위기상황별·시험시기별로 나눠 수능 시험장 방역 대책 및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위기상황별로 수능 전 상황을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는 수능 전날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전에 준비한 시험장 운영 계획에 따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된다.

2단계는 시험 전 수험생 중 확진자

가 발생한 상황으로 확진자는 병원시험장에서, 밀접접촉자, 감염의심자 등은 격리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시험장은 폐쇄 조치하고 이곳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일반수험생들은 대체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수험생 중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상황으로, 음압병실 및 격리시험장의 수험생 수용 한계를 넘어섰을 경우다.

이때는 안정적인 수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예상되지만, 전북교육청에서는 수

능을 2주간 연기할 것을 교육부와 평가원에 제안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수능 전 수능일 수능 후로 시험시기별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시험 전에는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지구별로 병원시험장과 대체시험장 및 격리시험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시험장 감독관을 추가로 위촉하고, 일반시험장은 예비시험실을 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긴급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별 방역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감독관을 위촉해 시험장 방역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과 시험감독관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구를 단일화해 발열검사 등을 진행한다.

/장은성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정의',  
함께 잘 살 수 있는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결실을 만들겠습니다.

# 희망찬 미래 형성하는 김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 2020 시정 역점시책

1.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2.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중심 도시 도약
3.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스마트 농업 육성
4.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흥흥한 복지 행정 구현
5.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6. 세계가 인정하는 상생·평화의 문화관광 도시 실현
7.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열린 시장 전개